

대형 쇼핑몰 잇단 입점... 옛 명성 부활 기대

총장으로 상권이 변한다

하 시각변동 효과와 우려



영세상인 죽이는 대기업 각축장 될 수도

광주 유통가에 변화의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총장로 일대에 대형 쇼핑몰이 잇따라 개점할 예정이어서 이 일대 상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를 계기로 도심 공동화와 경기불황으로 침체에 빠진 이 지역상권이 재기할 수 있을지, 대기업과 지역상권의 상생이 가능할지가 주목된다.

◇'패션의 거리'로 특화-상권활성화 견인=대형 쇼핑몰의 잇단 입점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장기적인 불황 속에서 광주 중심 상권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퇴색한 총장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이화영 총장로상인회장은 "총장로 일대 건물들이 비어가고 거리가 쓸런

할 때는 상인들 입장에선 답답할 때가 많았다"며 "대형쇼핑몰이 잇따라 개점 한다면 경쟁은 치치하더라도 상권이 서서히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 좋다"고 말했다.

또 '패션의 거리'로 특화돼 명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개점을 앞두고 있는 대형 쇼핑몰이 예경그룹 계열의 '와이지 파크'와 패션그룹 이랜드 계열의 'NC백화점', 스트리트 멀티 테마상가인 '더 로드 힐스'라는 점도 기대를 높인다.

동구청 경과과의 한 직원은 "유명 브랜드의 쇼핑몰이 줄줄이 입점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고 바닥을 쳤던 총장로 상권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라며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맞춰 상권이 집적화되면 상권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상생 못 살리고 대형유통업체 각축장 우려=상권활성화 기대와는 달리 지역 상권이 대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각축장이 되면서 오히려 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개점을 앞둔 3곳 중 2개의 기업이 예경그룹과 이랜드그룹 계열의 대형유통업체였으며 '더 로드 힐스'를 준비 중인 모던테이먼트(대표 오준철)만이 지역 기업이다. 또 대형유통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광주 진출을 노리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총장로에서 한 브랜드의 로드숍을 운영하는 한모씨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 입점을 통해 판로를 넓히고 수익을 높일 기회는 잡을 수

지만 대형업체의 자체 브랜드 상품 및 수입명품 등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주변 백화점과 패션전문점은 대형유통업체의 잇단 진출에 대해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유통업체의 생리상 업소가 많을 경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 마련이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장로 상권에 근접해 있는 롯데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주고객층의 차이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와 문화전당 완공 등 향후 소비환경을 고려할 때 이들 업체와의 판매·고객 확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産 '유플 세탁기' 삼성전자가 26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유플 세탁 기술'을 채용한 2013년형 전자동 세탁기 '유플 세탁기'를 출시했다. 이 세탁기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된다. <삼성전자 제공>

광주銀, 금융민원 감축 전국은행 1위

소비자보호 임원간담회서 우수사례 발표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보호 임원 간담회에서 참석자 금융기관을 대표해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광주은행이 우수사례를 발표한 이

유는 지난 20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2012년 금융회사 민원동향 분석'에서 전체 은행권 평균 14.3%의 민원 증가율이 발생했으나 오히려 광주은행은 은행권 중 가장 큰 폭인 28.6%의 민원이 감축됐기 때문이다. 광주

롯데백화점 광주점 취업 멘토링 캠프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상반기 채용 시즌을 앞두고 전남대학교와 함께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전남대 취업강의실 1층에서 3~4학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 멘토링 캠프'를 연다.

이번 '취업 멘토링 캠프'에서는 인사담당자가 제안하는 '성공 취업 비

롯데백화점 광주점 취업 멘토링 캠프

법', 입사 선배와의 '토크 콘서트', 취업 시 좋은 인상을 주는 '이미지 메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성공 취업 비법'에서는 롯데백화점 인사 담당자가 취업 시 고려해야 할 경력사항, 사회활동 등 롯데백화점 채용 기준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시멘트-레미콘 업계 가격 갈등 재연

"9~10% 올리겠다" "건설경기 침체 동결해야"

시멘트 가격 인상을 놓고 시멘트업계와 레미콘·건설업계가 신경전을 벌이며 두달째 대치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는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한 만큼 올리는 가격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멘트업계는 레미콘업계가 이달 말 시멘트 가격 인상을 결제하지 않으면 공급 중단 등 극단의 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레미콘업계는 영업 악화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시멘트 가격이 인상되면 모래와 자갈, 골재 등 다른 자재 가격이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다 레미콘업계의 임금 인상 심리까지 부채질할 수 있

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다. 대한협회 카협회와 전국레미콘총연합회는 이달 29~3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틀간 전국 건설현장의 골조공사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나 침체에 빠진 레미콘과 건설업계 전반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관련 업계 모두가 살려내야 하는 가격을 동결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건설경기는 올해 더욱 침체에 빠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1월 수출액은 43조3799억원으로 작년보다 44.7%나 감소했다. /연합뉴스

LH 광주·전남본부-협력업체 청렴실천 결의대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26일 본부 3층 대강당에서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발주자와 협력업체 간 청렴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Clean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청렴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

Clean 상생협의회는 LH 공사 본부장을 비롯한 건설현장 관계자 및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건설종사자 간 청렴의식 공유 및 청렴문화 정착, 상생협력의 파트너십을 통한 건전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을 하게 된다. /임동률기자 exian@

편의점·세탁소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편의점과 제과점, 세탁소 등 영세 자영업에 적용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추가로 내릴 전망이다.

'5년 만의 수수료 체계 개편'의 마지막 단계인 VAN(결제대행업자) 수수료 합리화가 진전돼 이들 업종의 카드 수수료를 최대 0.2%포인트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소액다건 결제 가맹점의 수수료 추가 인하를 목표로 VAN 수수료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카드업계, 한국개발연구원, 삼일회계법인, VAN 협회 등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연구역에 착수했다.

VAN 수수료란 카드사가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VAN사에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료다. VAN사는 소비자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건당 수수료로 90~150원씩 챙긴다.

카드사는 VAN 수수료를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해 부과한다. 전체 가맹점 수수료 8조원에서 VAN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000억원(약 8%)이다. 소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일수록 VAN 수수료 지출이 많아 수수료가 더 높아지지 못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2010년 6만1000원에서 지난해 5만6000원으로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서민생활 밀접업종'의 VAN 수수료 부담은 결국 자영업자가 감수하거나 소비자에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테크노파크 아웃리치 워크숍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희국)가 다음달 4일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전파'를 위한 아웃리치(Outreach) 워크숍을 개최한다.

다음달 3일부터 이틀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15개국 30여 명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스마트 전문화 전략 워크숍을 정책수립 전문가를 초청해 '혁신주도 성장을 위한 스마트 전문화-동아시아로의 확장'을 주제로 열린다.

광주시는 광주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이번 행사에 앞서 '광주 광산업 스마트 전문화 추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

박종진의
캐도난마

매주 월~금 오후 4시 50분

뉴스A

매주 월~금 밤 9시 50분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

매주 금 밤 11시

CHANNEL A

박종진 | 채널A 보도본부 경제부장
기자

이영돈 | 채널A 제작담당상무
프로듀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

<p>▲ 코스피지수 1983.70 (+6.03)</p>	<p>▲ 코스닥지수 549.90 (+0.34)</p>	<p>금리 (국고채 3년) 2.58% (0.00)</p>	<p>▼ 원 달러 환율 1105.70원 (-5.10)</p>
------------------------------------	-----------------------------------	-------------------------------------	---------------------------------------